

모시기에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.

이 조사에 의하면, 學部入學 學生의 數는 1984년의 1,724名에서 1985 年에는 1,562名으로 감소하였음이 명백해진 외에 碩士課程 在籍學生의 數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博士課程 在籍生에 대해서는 1985년에는 前年의 559名에서 582名으로 4% 증가하였으나, 美國 國籍을 갖고 있는 學生의 數는 逆으로 4% 줄어들었다.

이것을 卒業者에 대해서 보면, 學部學生에 대해서는 1984년의 728名이 1985년에는 660名으로 9% 감소하였으며, 碩士課程 修了者는 3% 減少된 306名으로, 博士課程 修了者는 14% 減少한 113名으로 나타나 있다. 그리고 全體에 點하는 女性의 비율은 모든 경우에 5~9%로

되어 있어 낮은 레벨에 머무르고 있다.

原子力工學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學生의 취직에 대해서 Oak Ridge大學聯合報告書는 昨年 學部卒業者의 22%가 原子力關係의 電力會社에 취직하였고, 17%가 大學院에 진학하였다고 하였다. 碩士課程을 수료한 학생중 27%는 다시 연구를 계속했고, 12%는 軍關係의 업무를 담당하였다.

DOE의 人材에널리스트인 J. 츄닝女史는 原子力工學 入學學生의 減少에 대해 産業界 등의 努力에 의해 現在의 「가난한 이미지」를 解消할 수 있다면 새로운 魅力있는 人材를 誘導하는 것도 可能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大學과 産業界 사이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이 必要하다고 지적하였다.

美 原電市場 回生展望

6年以内 建設始作

向上된 經濟性, 개선된 稅制, 우라늄 가격과 농축비용의 하락 등으로 수년내 新規의 發電設備을 필요로 하는 美國의 電力會社들은 새로 原子力發電所를 發注하게 될 것이라고 美原子力産業會議(AIF)의 J. Siegel氏가 9월2일부터 4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英國우라늄研究所가 主催한 심포지움에서 이와같이 그의 견해를 밝혔다.

Siegel氏는 앞으로의 發電容量中 약40%를 原子力이 차지하게 될 것이며, 지나간 역사는 접어두더라도 火力發電보다 환경오염이 적고 저렴한 原子力이 경제적인 에너지源임을 입증하

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. 또 保守的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電力要求量은 매년 3%씩 증가하며, 이는 2000년까지 170GW의 새로운 發電容量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밝히면서 평균 8年の 建設期間을 고려할때 電力會社들은 앞으로 6年이내에 새로운 發電所를 發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.

또한 1982년이후 14%의 電力이 增加하였으며, 이 增加에 대해 쉽게 石炭發電을 생각할수 있으나, 이는 原子力의 0.6센트/kWh보다 3배 이상 비싼 2.0센트/kWh의 燃料費를 지불해야만 될 것이라고 하였다.